

영암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군민행복시대' 박차

인구감소 극복 3개 분과 73개 사업 추진 박차... "인구 6만 회복 총력"

영암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영암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6만 인구 회복을 목표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암군은 사망률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데드크로스 현상의 지속, 청년 인구의 감소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크게 '정주여건 개선(21개 사업)', '청년·일자리(24개 사업)', '복지·문화(28개 사업)' 3개 분과로 분류하여 현황 분석부터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까지 분야별 정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는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된 불량 주택을 보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

고 고령자, 독거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보급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복합센터와 특화상점가 조성, 새싹돌봄센터 등을 건립하는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영암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 화합과 편의증진 및 정주여건의 보편적 개선을 위해 마을 공동 이용시설 사업과 농어촌 도로망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분야는 2018년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 후 매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청년 근속 장려금, 직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일자리카페 운영 등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창업 및 구직을 위한 자산형성사업(디딤돌 통장사업)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월세지원 사업 및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그리고 영암군의 청년들이 안전하게 병역이행을 할 수 있는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을 시행하여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청년종합소통센터가 완공되면 청년들의 창업·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협의체와의 교류영역을 넓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개발확충하여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 육아까지 눈스톱으로 이어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작은 영화관,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진흥 프로그램, 저소득층·여성·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 19시대에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영암군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영암군 유관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입



유도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전입 유공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6만 인구 회복을 위해 민간 협업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은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출생

에서부터 초·중·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성인으로 가는 단계별 성장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완벽히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인구6만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실시

1동당 500만원 지원...건축주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목포시가 방치돼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을 저

해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최대 5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초과부분 자부담)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사업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20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붕괴 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광주 시외버스 정류장... '송정역' 앞으로 통합

영광군, 금호고속과 협의 다음달부터 '송정역 정류장' 운영

광주와 전남 영광을 이어주는 '통합 시외버스 정류장'이 광주 송정역 앞에 설치 운영 된다.

영광군은 노후화된 광주 영광동 간이버스 정류장을 폐쇄하고, 송정역(KTX) 앞에 새로 설치한 간이버스 정류장을 오는 3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영광동 정류장에서 14회, 송정역 앞 정류장에서 3회

정차했던 전체 17회 시외버스 노선이 송정역 정류장으로 통합된다. 기존 광주 송정동 영광동 입구에 있던 정류장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영광군이 최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금호고속과 협의를 마치고 영광 방면(영광읍·법성읍·홍농읍) 버스 노선 탐승구를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송정역(KTX) 앞 정류장으

로 통합했다.

송정역 버스정류장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영광을 찾는 외지인과 광주를 왕래하는 군민을 비롯해 광주 지하철, 택시로 환승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향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무안군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소통창구 확보와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수출 중소기업 4개사를 대

상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신규제작, 기존 홈페이지 전면개편, 기존 국문 홈페이지 외국어 추가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한 기업과

수출 초기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관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체(최근 3년간 1년이라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지원가능)이며,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6일 까지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6억 6천만 원 투입 총 375대

함평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25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

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

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만원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